

IV. 金利 展望과 政策 課題

- (向後 金利 展望) 96년중 金利는 기업 설비자금 수요 둔화 및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10~12%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
- (金融市場의 發展) 장단기 금융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고 금융하부구조를 정비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
- (資金 需給 構造의 改善) 기업의 차입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함
- (通貨金融政策의 先進化) 물가불안심리를 불식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화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혼합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. 또한 총통화(M₂) 지표의 개선과 간접 통화관리방식의 정착이 요망됨

1. 向後 金利 展望

96년중 金利는 10~12% 유지 전망

- 96년중 金利는 기업의 설비자금 수요 둔화 및 풍부한 유동성으로 전년(15.9%)보다 낮은 수준인 10~12%를 유지할 것으로 대체로 전망됨
 - 최근의 金利하락에는 기대심리도 작용하고 있음
 - 기업의 경우 추가 金利인하를 기대하여 회사채 발행을 미루고 있고
 - 금융기관의 경우 빨리 상환된 대출자금으로 자금사정이 풍부하게 되어
 - 金利를 인하하는 힘으로 작용함
 - 일시적으로 金利가 10% 벽을 돌파할 수도 있으나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의 호조, 현재 미루었던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인해 지금보다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

인위적 金利인하는 金利의 변동성 확대 초래

- 한편 인위적인 金利 하락 유도는 자칫 金利 변동성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함
 - 정부의 인위적 金利 인하 정책이 의도한 대로 경제에 파급되지 않았을 때 金利의 상승반전은 물론 金利 변동성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음